

베드로전후서 강해 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경말씀: 뵤전1:1-16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지옥 형벌을 면하면 끝인가? 여기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아야 할까?(롬6:1-2), 목표를 바르게 정하지 않으면 인생 여정에서 구원받고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요17:3).

그러므로 구원 이후의 삶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부분 성도들의 착각과 이해 부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는 말이지만 대단히 틀린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구원과 성화의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속성: 스스로 존재하는 분, 삼위일체, 전지전능, 무소부재, 신실, 불변하는 분, 사랑과 긍휼
현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

성경의 구조: 창조, 구속, 예배(레19:2; 시29:2 ; 99:9; 뵤전1:15)

holy 611, holiness 43, sanctify, 187회: 약 841회

love 310, loveth 65, lovest 12, loved 98, loving 3: 488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출3:5),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수5:15),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사야 6:3,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4:8, 은혜, 은혜, 은혜 No! 사랑, 사랑, 사랑 No!!!!

하나님은 자신의 온 창조 세계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건강은 곧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반대가 되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다 멸하려 하신다.

o 에덴동산의 죄,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동성애), 나답과 아비후(레10:1-3), 웃시아 왕(대하26:16-21)

o 아나니아와 삽비라, 고린도 교회의 음행한 자(고전5:3-5), 주의 만찬 무시(고전11:28-30), 헤롯(행12:20-23)

십지어 모세와 아론도 죽음(민20:12), 반석에게 말하라(8),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침(11)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love가 아니라 charity

고전13:4-7, 공의가 동반되는 사랑이라야 예수님의 사랑, 무례함 No, 불법 No, 진리 Yes

o 킹제임스 성경만이 올바른 성경이다. 다른 것은 틀린다.

o WCC는 악한 것이다.

o 교회에서 무례히 굴지 말라.

거룩한 자가 되라.

1절: AD 65년경, 일반 서신, 주로 여러 지역의 유대인 대상(터키 위 지방)

2절: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선택, 예정),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 예지 예정

3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하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허당

4절: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됨(아바 아버지)

5절: 세상의 끝에(간절히 재림 소망), 예비된 '예약'을 뜻함. 비행기 예약, 호텔 예약한 뒤 종종 가 보면 취소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파워)에 의해 보호받는다. 여기의 보호는 군사용어로 율타리 치는 것을 말한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유지도 믿음으로 된다.

6절: 서신의 대상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험과 근심: (a) 필요가 있어서, (b) 여러 종류이다, (c) 쉽지 않다, (d)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잠시’

성도라고 세상의 문제들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전10:13). 가정, 직장, 결혼, 자녀, 재정, 공부
7절: 고통의 목적, 단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금광석, 용광로, 불순물 제거, 순금, 금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럽다. 개인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려고
궁극적인 영광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난다.

8-12절: 이런 영광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고후5:7).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고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13절: ‘그러므로’ 혼의 구원을 통해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기쁨을 누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섬기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 믿음 생활해야 한다. 전망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태도는 행동을 가져온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14절: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의 정욕들을 따르지 말라. 헛된 말, 거짓말, 술 취하기, 음행, 비방, 소문 퍼뜨리기, 파당, <혈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남의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즉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話題(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15-16절: 기록해야 한다. 어디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왜? 하나님이 기록하니까.

현대 교회는 기록함을 잃고 있고 그것을 사랑과 혼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기록함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이 아니라 기록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기록하게 경배하여야 한다(출15:11).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기록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이다”(시29:2).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저속한 음악, 가사, 말, 입신, 방언 등을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체 하지 말라. 예배드리고 성경공부 할 때만 거룩한 체 하지 말라.

교제 시간에, 가정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구분된 말과 행동이 나와야 한다.

“빨개 벗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구역 모임 후 술자리, 노래방”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고후5:10-11

엡4:17-32, 5:26-27

영혼의 자유, 사랑, 은혜를 그대로 놔두면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은 기차와 같다. 사랑의 엔진, 이 기차가 있기에 모든 것이 편하다. 어디든지 간다. 짐을 실어 나른다.

정치를 본다. 신다. 그런데 이 기차가 마음대로 다니게 하면 사람을 죽인다.

반드시 레일 위에서 다녀야 한다. 그 레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모든 일이 질서 있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말, 복장, 행동, 교제(핸드폰 걸러링). 교회 밖에서 만났을 때 나누는 대화와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며 그런 식의 거룩하지 못한 경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잠28:9). 그러므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야곱과 같이 베엘로 올라가야 거기에 부흥이 있다(창35:1-5).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갈등을 일으킬 때 반드시 거룩함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는 또 존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후서 강해 8: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성경말씀: 벧전1:17-22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엡2:8-9, 롬3:20-24, 갈2:16 등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로 변질되고 있다. 값싼 구원, 싸구려 구원

그 결과 구원 받은 이후에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요즘 구원파, 사랑의 교회(불법, 위법, 무법)

무진장 애를 써서 구원을 얻으라고 했으면 구원받은 뒤에 그것을 엄청나게 귀중히 여길 것이다.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시험과 유혹이 닥치면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시험과 유혹: 마귀, 세상, 육신이 불려온다.

한편 구원받고 빠르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딤후2:12).

정상적인 핍박, 이단으로 핍박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의 주제: 고통과 고난(벧전2:21)

베드로의 임무(요21):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구원 받았으나 로마 치하에서 고생하며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한다(6-7).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한다(13).

그러면서 이전 정욕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한다(14-16).

현대인들이 아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 공의와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다. 여름철 의상 조심

17-2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고 그 결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리스도인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행실

하나님과 성도(17)

1.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appearance이고 person이 아니다). 사람 혹은 재판관과 다르다. 지위, 부귀, 학식, 미모, 권세 No
 - a. 구원을 주실 때도(행10:34), b. 심판하실 때도
2.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롬2:6-11
3. 그래서 성도들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약2:1-4).
4.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구한다.
5.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으면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빌2:12).
6. 우리는 여기서 잠시 머문다(벧전1:1). 히11 믿음의 성도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18-19)

1. 과거에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의 헛된 행실을 기준으로 살아왔다. 헛된 행실(생활 방식): 주로 우상 숭배, 잡신 숭배, 샤머니즘, “지성이면 감천이다.”
 - d;슬람, 불교, 천주교 등 모두가 행위 구원이라는 헛된 행실을 가르친다.한국식 기독교도 헛된 것이 많다: 성전, 제사장 같은 개념, 버려야 할 헛된 행실이다.
2.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다. 구속: 노예 시장에 팔려나온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돈을 내고 사야 한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 노예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롬5:6-8).
3.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일을 다 이루신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사람 편에서는 100% 무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희생을 하신 것이다. 특히 아버지 편에서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몸소 보아야 했다(골5:21).

구속과 구원의 차이: 구속은 하나님의 일, 구원은 내가 원해야 한다.

구속의 방도: 그리스도의 피(19)

1. 아담의 죄, 하나님의 진노, 마귀의 사망 집행, 죄없는 피
2. 구속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한다(대신 속죄). 그러나 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3. 그분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 그 피는 보배로운 피(precious blood)
3.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출12의 유월절 규례, 1월 10일에 어린양을 택한 뒤 사흘 동안 점검하고 1월 14일에 죽여서 그 피를 대야에 담아 우슬초에 묻혀서 문기둥과 인방에 뿌려야 한다. 피가 뿌려진 집은 파멸시키는 천사가 넘어갔고 없는 집은 장자의 죽음이 있었다.
4.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양 예수님(요1:29)은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흘 동안 분명히 보이시고 정확히 1월 14일 유월절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

1. 속죄(육체의 생명은 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 레17:11, 히9:22), 구속(벧전1:18)
2. 칭의(롬5:9), 3. 하나님과의 화평(롬5:9), 4. 죄들의 용서(엡1:7)
5. 성화의 삶(요일1:7; 히13:12), 6.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히10:19)
7. 믿음의 성숙함을 준다(히13:20-21). 8. 신약을 여심(마26:28):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
9. 형벌과 심판의 근거가 된다(히10:29).
10. 기독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21-22)

1.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진 분,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분(계13:8)
2.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은 영원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일
3. 바로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드러나셨다. 처녀 탄생을 통한 성육신
4.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딤후3:16)
5. 복음의 핵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22-23)

1. 우리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여 바로 이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였다.
2.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다(히11:3).
3.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영생을 허락하신다.
4. 그 결과 구원받은 우리는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위선 No!
5. 주님의 유언의 말씀(요13:34-35).
6.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하나님 사랑, 지체 사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
7.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다. 이 마음은 믿음에서 온다(행15:7-9).
8. 그리스도인의 이런 사랑을 charity라고 표현함. Charity는 신약에만 28회(고전에만 12회), 그리스 어 아가페는 총 117회, 89회는 Love로 번역됨. 헌신적으로 주는 사랑
9. 고전13장, 대언, 방언, 신비, 지식, 믿음,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은사, 재능은 다 없어진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 일을 사랑을 따라 하라.
10.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말: 아내와 자식을 모질게 대하지 말라(골3:19). 폭력, 폭언, 무관심 No!
11. 교회의 지체들에게 부탁하는 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의 고통이 있는지 눈여겨보라.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할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장소가 아니다.
12. 히10:23-25

결론

1.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기록하고 올바른 행실, 뜨겁게 하나님, 지체, 불신자들을 사랑함

베드로전후서 강해 ㄱ: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 벰전1:23-25

성도로 부르신 목적: 기록한 자(15-16),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함(18-19)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창조자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한다(21).

그리고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함(아내와 자식, 지체, 불신자들, 22).

형제들, 창5:1, 3, 마1:1,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모두가 형제/자매

어떻게 주님의 한 세대에 들어가는가? 영적 출생을 통해서(요3:1-16)

육적 출생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듯 영적 출생에도 성령님(요3:5-6)과 말씀(벰전1:23)

육에선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요3:6)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형제로 만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말씀은 씨이다(23)

첫째 출생은 육체의 출생, 씨를 씨에서 난다. 썩는다.

우리의 아들딸들은 다 죽는다. 인류의 역사를 보라. 몇 백 년을 가지 못한다.

심지어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다(계2-3의 7교회). 육신적 노력으로 이루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지 않는 씨로 태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다시 태어났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가? 말씀에 의해서(23절)

여기의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다. 복음을 담은 성경(25절)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기적, 예수 그리스도 등), 성경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

기도, 체험(방언, 신유), 전통, 훈련(교육)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그 결과 성령님이 우리 몸을 다 소유하신다(고전6:19-20). 맹장과 같은 부수적 존재가 아니다.

눅8:4-15,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바위, 가시나무, 좋은 밭(백 배의 열매)

11절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롬10:17).

벰전1:18-19절의 진리를 무엇을 통해 알고 받아들이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야 한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No!

이단의 문제: 말씀에 따라 믿지 않는다.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이슬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국 교회의 실정: 과연 성경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성령 반말 No!

성경의 창조자 하나님, 성경의 구속자 하나님, 성경의 구원자 하나님, 성경의 재판자 하나님, 성경의

심판자, 복음의 핵심도 성경기록대로

말씀은 살아 있다(23)

하나님의 영감(딤후3:16), 숨이 들어 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살린다(창2:7), 히4:12

그래서 매이지 않는다(딤후2:9).

이 책은 잉크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살아 있다. 중세 천주교 암흑시대: 성경 멸절

왜 그런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다. 성도들 안에 계신 그 영과 동일한 영이 들어 있다.

바로 이 영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불신자의 경우, 죄를 확증해 준다(롬1:29-31). 코너로 몬다. 그래야 행복한다.

신자의 경우, 죄를 확증해 준다(구원받은 자들의 삶, 골3:19). 회개하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시19(7-14), 혼을 회심시킨다.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진실하고 의로우므로

로 금보다 더 사랑하고 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한다.

성경의 효능이 이러하므로 읽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미국의 타락, (1)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80%)는 성경 말씀이다. (2) 소돔과 고모라는 남편과 아내, (3) 산상 수훈은 빌리 그래함, (4) 사람의 가장 큰 임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설교가 부실하고 성도들조차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슬픈 현실 올해 성경 일독을 시행 중, 읽어야 산다. 구원받을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말씀은 영원토록 거한다(23, 25)

마24:35

이 성경은 이 땅과 하늘의 모든 원소들이 녹아도 그대로 남는다(벧후3:10). 인간의 모든 것은 없어져도 여전히 하늘에는 이 성경이 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보여 준다. 24-25는 사40:6-8 인용, 6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7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모든 사람은 풀과 같다.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카이사르, 헤롯, 진시황, 징기스칸, 어거스틴, 교황, 칼빈, 이순신, 세종대왕 다 소용 없다. 사람의 영광은 풀의 풀과 같다(911 세계무역센터, 에펠탑, 만리장성, 63빌딩 피라미드(시2:1-4), 지구는 먼지와 같다.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라. 심지어 들의 백합의 영광과도 같지 못하다(마6:28-29). 고양이, 어린아이, 금붕어를 보라. 심지어 인간을 복제해도 그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꽃의 수명은 매우 짧다. 백합 열흘을 가지 못한다. 그 좋던 것이 누렇게 변한다. 다윗의 고백(시103:15-16)

15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16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도 풀처럼 이 땅으로 들어와 잠시 영광을 보이고 살다가 죽는다. 피어스 선교사님 그러므로 영원을 어디서 보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고민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고민하며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유일한 구원자, 대신 속죄, 죄인, 영존하는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존해 주신다. 보존이 없으면 다 공허한 말이다.

시12:6-7

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을 손에 들고 있다.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셔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셨다.

킹제임스 성경, 바로 이 성경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한 말씀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믿음생활 하는가? 설교를 하는가? 불가능하다.

결론

우리는 형제/자매인가?

다시 태어났는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확실한가?

이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가?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가? 확신하는가?

베드로전후서 강해 4: 성도의 신분과 의무

성경말씀: 벰전2:1-10

벰전1:23-25, 우리는 썩지 않는 씨,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그 성경 말씀은 영원무궁하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말씀이다. <성도의 신분과 의무>, 성경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신분과 의무를 살펴보려 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1-3)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집의 아이들로 태어난다.

그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충분히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다(2).

이 세상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는 일: 젖 먹고 자고 크는 것, 젖을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시 태어난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 중 하나, 말씀 사모, 일생에 한 번 경험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한다(3). 시19:10 꿀과 벌집보다 달다.

그 젖은 어떤 젖인가? 말씀의 순수한 젖, 믿음을 키우는 유일한 수단(롬10:17)

개역성경: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행위'의 카톨릭 구원 방법,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구절과 빌2:12 때문에 힘들어 한다.

구원은 출생, 그 이후에 자라야 한다(벰후3:18).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른 것을 먹는 경우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치워야 한다.

성도의 성장을 막는 것: 1절의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다.

악의: 사악한 일, 누구를 심히 미워하는 것, 악한 의도를 품는 것, 교회를 뜨게 하는 누룩(고전5:6-8)

교활함: 속이는 것, 이것들을 몰래 숨기면 위선이 된다. 악의를 품게 만드는 요인: 시기와 질투, 여기서 비방하는 말이 생긴다. 악한 가십 등을 치우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로서 젖을 빨며 성장할 수 없다.

우리의 첫째 신분: 하나님의 가정의 복된 아이(요1:12)

영적 집의 돌들(4-8)

마16:18,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내 교회'가 바로 5절의 영적 집이다. 오순절부터 교회의 휴거 때까지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의 돌이 그 집에 추가가 되며 그 집이 완성되어 간다. 피라미드 생각해 볼 것

나라와 민족이 상관없다: 벰전1:1의 다섯 지방. 나이와 시대가 상관없다. 한 집(엡2:19-22),

그 집의 으뜸 모퉁잇돌이 바로 예수님이다(엡2:20).

1. 그분은 산 돌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2. 아버지께서 선정하신 돌이시다: 자기 뜻대로 오신 분이 아니다. 족생자

3. 보배로운 돌이시다.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성도들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두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1. 유대인들은 그분을 떨시하고 배척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야가 아니다.

2. 그 이유: 그들은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8절).

a.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태어났따(요8:44).

b.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요8:58).

c.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10:30).

3. 그래서 그분은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로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바위가 되셨다.

4.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보배로운 돌이 되신다(7).

a. 유일한 신랑(아5:10-16)

6. 단2, 세상 왕국의 변천,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모든 왕국을 격파하고 하늘의 왕국을 세운다(단2:44-45).

왕가의 제사장(5절 읽고)

그 살아 있는 돌에 의해 우리는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5).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
priest, priests 약 900회,

창14장의 멜기세덱, 율법 수여 이후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 차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왕좌 앞에 들어가는 특권

전 성도 제사장직: 지난 2000년 동안 신약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지킨 가장 굳건한 믿음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계20:6).

즉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목사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1. 선정된 세대: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가 있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세대들은 첫 아담의 세대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선정된 한 세대

2. 거룩한 민족: 과거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으므로 신약의 우리 역시 핏줄은 다 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별된 민족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10)

특별한 백성: 여기의 peculiar는 원래 소유물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자신의 소유이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

과거에는 무할레자라 불리며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한 외인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공화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공화를 얻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백성이 된다.

성도의 신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9)

영적 집의 돌, 왕가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트로피이다.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것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보이게(널리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9). 계4:11

가족, 교회, 사회, 국가에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이런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개인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쓰신다.

우리가 할 일

1. 개개인의 믿음 성장(말씀)
2. 지역 교회 확고히 설립, 유지, 계승
3. 선교/전도 사역(지역 교회들, 목사들 지원)
4. 모든 것의 기초인 말씀 수호
5. 휴거의 소망

베드로전후서 강해 15: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성경말씀: 벰전2:11-25

벰전2:1-10,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의 신분과 의무, (1) 하나님의 아들딸: 새로 태어난 아기들, (2) 영적 집의 돌들(4-8), (3) 왕가의 제사장, (4)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트로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보여야 한다. 가족, 교회, 사회, 국가에서

세월호 사건, 50일이 지남, 마음이 착잡하다. 많은 성도들을 무지로 넣고 돈을 갈취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함.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돈만 모으다가 초대형 안전사고를 냄,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을 떨치하며 도망다님, 망명 신청까지 냄, 우리 성도들로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교회 사이트에도 이런 글이 올라온다, 5,000억 횡령, 교회 프렌차이즈, 그리스도인 병역 기피자가 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등이 나면 촛불 집회장으로 나가야 하는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사회적 책임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2:11-3:12, 내용은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것, 무법 세상, 평등 세상에서 실행하기 어려움. 노동당 투표 참관인, 대통령의 악수 거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자가 어울리지 않게 대통령이 랍시고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닌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악수에 응하지 않았다.”

권위가 파괴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국가(11-17), 사회 직장(18-25), 가정(3:1-7), 교회(3:8-12)

국가, 사회, 가정, 교회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노예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질서 파괴되고 국가, 사회, 가정, 교회가 멸망한다(고전14:33). 사람은 누구나 권위를 행사하기 원한다. 그런데 그 전에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국가의 형성: BC 2400년경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인간 정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창9:5-7). 순서, 권위 하에서 다산하라. 창10-11장 민족 형성, 바벨탑 분산

예수님과 사도들의 국가/사회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국가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1. 마17:24-27, 가버나움에서 공세를 내심, 자녀들은 면제,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내심.
2. 마22:15-22, 바리새인들,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카이사르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3. 눅13:1-5,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것,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 데모해라. No! 사람인지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탐욕, 실수). 그럼에도 나라를 전복시키는 일은 안 됨.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 자체를 행한 적이 없다.
4.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빌라도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지만 그분은 세상의 모든 규례에 순종하고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였다(13절).
5.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네로라는 사악한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로마에 불을 내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악랄한 자, 그래도 13-14절에 따라 성도로서 마땅히 세상 권위에 순종해야 함.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 좋은 시민
6. 사도 바울의 고백: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메시야다.”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려 옥에 갇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의 고백(행25:8; 11),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순교하였다.
7.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간 성도들의 기본 자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받아 세상 권위에 순응하며 살았다.
8. 그 이유: 나그네와 순례자(2:11), 예수님의 말씀: 내 왕국은 여기에서 속하지 않는다(요18:35-37).
9.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10. 교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아니다.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불의와 비진리를 미워하지만 그것들을 무력으로 타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혼의 문제를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 신자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규례에 순종해야 한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한다.

왜 국가와 사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 하는가?

A.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11-12)

1.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11).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2. 나그네요, 순례자다. 즉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외국이다. 외국에 가면 거기 시민들이 방문자, 순례자들을 유심히 살펴본다. 괜히 트집을 잡는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대
3. 육체의 정욕들과 싸우는 군사들이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자들,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구원과 사람들처럼 정욕들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 패하고 조롱거리가 된다.
4.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12). 그래야 우리를 비방하다가도 돌아선다. 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본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지만 사람은 본다.
5. 12절의 '돌아보시는 날'은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 그때에 이들이 우리에게 대해 증언할 것이다.

B. 주님을 위해서(13-17)

1.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널리 전하는 것(2:9), 즉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있다.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2.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 한다. 왕과 총독, 대통령, 장관, 시장, 군수 등
3.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15).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데 있지 않다. 좋은 시민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며 충성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4.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라. 국가의 법이 그들의 믿음을 위협할 때 양심의 요구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지만 데모하고 반역자가 된 것이 아니다. 촛불 시위한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왕의 권위에 순종하였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의 성도들, 로마 제국과 카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았지만 좋은 시민으로 법에 순종하며 살았다. 주님을 위해서
5. 그 이유는 무엇인가?(롬13:1-2).
6.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딤후2:1-3).
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왕을 존경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17).

C. 우리 자신을 위해서(18-20)

1. 종들에 대한 의무: 로마 시대에 종들이 있었다. 주인이 있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경우 종이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18).
3. 심지어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야 한다(19). 직장 생활에 얼마나 부당함이 많은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고 이겨야 한다.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
4. 잘못하지 않았어도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20). 좋은 직장인/사회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 주셨다(21-25)

A.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의 본보기

1. 무언가를 새로 제작하거나 시작하려면 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 주셨다(21).
2. 무죄한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다(22-23). 이 땅의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 심판자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
3. 죄인들을 위해 심지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24). 십자가의 역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본을 보여야 한다.
4. 그 결과 길 잃은 양이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혼의 목자, 감독(25)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한다

- A. 1945년 8월 15일 해방,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창립,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호국보훈의 달, 목숨 바칠 각오

베드로전후서 강해 1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성경말씀: 벰전3:1-4

벰전3:1-7 가정과 결혼 시리즈 “남편과 아내의 행동 지침”

3:1-4 설명, 교회의 팽창, 옷차림 규제 설명 필요,

목사의 책무: 하나님의 모든 계획(행20:19-20, 26-27),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아이들, 청년들

옷차림 규제가 있는가?

대부분 교회는 무엇을 입든, 무엇을 하든 교회만 오면 된다는 논리를 편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널리 알려야 하는 존재(벰전2:9)

이런 면에서 성도의 겉모습도 대단히 중요하다. 내면만 바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기도, 찬양, 예배, 설교 등 모든 영적 생활은 내적/외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다.

공예배에서는 옷차림, 자세, 동작 하나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

1.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옷을 챙겨 입는다.
2. 성경은 옷으로 시작해서 옷을 끝을 맺는다(가죽옷, 아마포, 고후5:1-4).
3. 옷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수단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4. 옷은 대화의 수단이다: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무엇하는 사람, 출신인지 드러난다.
5. 책은 겉장으로 판단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옷으로 판단한다. 삼16:6-7, 고전14:23
6. 옷에는 위력이 있다: 경찰관, 인터뷰 복장, 군인 제복
7. 옷은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 예배, 영화관, 직장, 운동, 그러므로 옷은 대단히 중요하다(의식주).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 그리고 옷차림

성경은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이다. 이 백성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노아 당시 8명,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들 교회(에클레시아)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마16:18)

세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려야 한다(롬12:2)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분께 경배한다.

예배는 가장 존귀한 대상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가장 존귀하게 섬기는 것, 공예배, 사예배 모두 특히 공예배에서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는 태도와 목소리를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험, 은혜, 긍휼, 사랑, 아름다움, 거룩함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찌들었다가도 공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영이 활기를 얻는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1.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시29:1-2). 거룩함이 빠지면 예배 의미가 퇴색됨.
 - a. 자세, 동작, 옷차림, 말, 노래, 기도, 말씀 낭독, 설교, 광고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 b. 거룩함은 곧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다.
2.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다. 말라기의 백성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기대를 무시함(말1:6-7; 12-13)
3. 희생의 정신(막12:41-44), 과부의 이 렵돈, 힘들고 불편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신약시대의 예배

1. 과거에는 희생물을 바쳤으나 지금은 예배자가 희생물이다.
2. 입술의 찬양의 희생물을 드린다(히13:15). 영과 진리로(요4:23-24), 이것을 오용하면 안 된다.
3. 신약 시대는 성도 자체가 희생물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장이다. 더 엄중한 책무
4.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대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어떤가?
 - a. 토요일에 일찍 자고 현금도 새 돈을 준비하는 등
5.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받으시는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빌4:18).
6.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히12:28-29).

예배 복장

결혼식장에 추리닝, 운동화, 슬리퍼 신고 갈 수 없다. 최상의 옷을 입고 가야 한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은 복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성경은 남성의 복장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 하지 않지만 여성의 복장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다(벧전3:3-4; 딤후2:9-10). 왜 그런가?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고 여자는 듣는 것에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보는 것으로 인한 실족거리를 주지 못하게 하셨다(나체 사진 등, 마18:7).

이런 구절을 오용해서 여자는 화장하거나 장식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꾸면 주신다(희고 고운 아마포 옷, 계19:8, 엡5:27; 시45:13-14).

여기의 요점은 단정하게 차려 입는 것 이상으로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단정함, 정숙함, 얇전함(shamefacedness)이다.

이 말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므로

남자의 경우 정장이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 어떤 옷이 여성에게 단정하고 정숙하고 얇전한 옷인가?

많은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의 답: 신22:5,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치마가 아니면 가증함 No!

이 구절은 문맥에서 봐야 한다. 10, 11과 12절을 보면 혼방은 안 되고 또 옷에 술을 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가지고 치마를 입지 않으면 가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최초의 옷 사건: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고 지냈다(창2:25). 죄를 지은 후 곧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다(창3:7-11). 이 앞치마는 벌거벗음을 가려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으면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가죽 코트).

핵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벌거벗음을 가려야 한다. 막5:1-15(특히 15절, 바른 정신, 옷)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친족들과 성적 접촉을 하면 안 된다(레18:6 이후). 벌거벗음을 드러내므로 특히 여자는 벌거벗음을 자기 남편에게만 드러내야 한다.

어느 정도가 벌거벗음의 기준인가? 아담과 이브의 가죽옷 길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출28:42의 제사장 규정

사47:1-3,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 치마를 걷어 올리는 모습, 넓적다리까지 올리면 벌거벗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는 여자의 넓적다리가 보이는 옷은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된다.

자매들은 무릎 이하로 내려가는 옷을 입는 것이 합당하다. 미니스커트 No(마5:28의 음욕)

대화 시 남자에게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 땅에까지 닿는 치마 불필요.

그러면 꼭 치마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사용하여 판단하게 하신다.

고전11: 남자와 여자의 머리 문제, 여자는 길게, 남자는 짧게, 본성도 남자의 긴 머리는 아니라고 한다

(14). 여자의 긴 머리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남자와 여자의 옷도 본성적으로 알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화장실, 말은 달라도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본성을 고려할 때 여자는 치마를 입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꼭 치마를 입어야만 하는가? 성경의 답은 “아니다.”이다. 바지를 입어도 된다. 다만 단정하게 얇전하게 입어야 한다. 여기서 얇전함은 여성의 신체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음욕).

그러므로 여자의 몸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수준의 적당한 바지는 허용이 된다.

단정하다는 것은 적절하다는 것이다: 운동, 등산, 카누 등을 할 때는 여자도 운동 바지를 입어야 한다.

치마면 다 되는가? 아니다. 몸을 조이는 치마는 바지보다 못하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으면 영적인 사람인가? 외적 모습은 영성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다만 내적으로 영이 단정한 사람은 외적으로도 그것이 표출된다(눅6:45).

결론

우리 교회의 옷차림 기준: 공예배에서 남자는 정장, 칼라 있는 셔츠, 여자는 무릎 이하의 치마나 바지,

다만 예배 때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정장, 치마(주의 만찬, 찬양, 기도, 말씀 낭독, 안내 등).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를 주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베드로전후서 강해 7: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결

성경말씀: 벰전3:8-17

한국이든 미국이든 오순절/은사주의가 맹위를 떨친다. 핵심: 큰돈 현금하고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충성하면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 과연 그럴까?

나 역시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을 충만히 받기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복의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다.

구약은 땅의 백성, 땅의 복, 신약은 하늘의 백성, 하늘의 복

구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저주로 보았다. 모세 오경 등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다만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만 구약시대에 살면서도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며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다. 누구 하나 핍박과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가 이 시간 땅의 복도 받기를 원하신다.

특히 지금처럼 순교 당하는 때가 아닌 때에는 더더욱 땅의 복도 받으면 좋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가끔씩 땅의 복을 누리려 비결이 나와 있다. 오늘 읽은 벰전3장이 그중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복을 주시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알려주신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는 돈/재물 등을 가지고 와서 복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이 비결을 잘 따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

9-11절 읽기,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결>, 특히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교회 안에서(8)

성경대로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딤후3:12).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한 마음: 한 믿음, 한 성경, 한 교리에서 나온다.

형제로서 사랑하고 동정하라.

성경에 비추어서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한다. 말을 놓지 말라

불신자들에게(9)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마5:43-48).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신다.

샘 존스 목사 집회, 노름꾼의 간증, 그리스도인 아내와 결혼. 아내의 권유에도 듣지 않음.

다른 노름꾼과 함께 11시에 노름판에서 나옴. 커피가 먹고 싶다. “내 아내가 끊여 줄 것이다.”

“어떻게 천사 같은 부인이 마귀 같은 내 친구와 삽니까?”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제 남편은 이제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라도 제가 행복하게 해 주어야지요.”

남편의 회개

이렇게 하면 영원한 복을 상복 받는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다.

베드로전서의 실제적 교훈: 말이 아니라 행실로 구원시켜야 한다(3:1).

행복한 삶을 살려면(10-11)

성경에 나오는 장수의 비결: 엠6:1-3

벰전3:10-11은 일반적인 규칙을 말함, 이것은 원래 다윗의 시편(34:11-16)

삼상16장,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임, “천천, 만만”, 이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함. 가장 가까운

사울에게서 핍박이 들어옴, 왕의 사위가 됨, 그의 딸과 아들이 다윗을 보호함,

삼상21:10-15,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감, 아기스(이름), 아베멜렉(호칭),

살아남기 위해 미친 채 하면서 경멸의 대상이 됨. 이 정도로 성도가 핍박받는 경우가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윗은 교훈을 주려고 이 시편을 기록하였고 베드로는 로마의 압제 하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 즉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

34:11, 왕이 된 이후에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려 함.

다윗의 삶의 특징: 주를 두려워하는 것, 베드로도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다.

12절,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나쁜 것이 아니다.

13-14절은 벤전 10-12와 같다.

1. 혀를 조심해야 한다(10, 약3:2, 5-12, 잠18:21). 교회에서, 사회에서의 다툼이 많은 경우 혀로 인해 생긴다.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시31:20). 다윗의 시
2.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라(10), 특히 목사들은 조심해야 한다. 숫자를 늘리거나 거짓 보고 No!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리라고 다짐하라(엡4:15).
3.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11). 청년들이 음행/주초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시25:7). 나무와 못
4. 모두의 유익을 위해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11, 롬12:18). 심지어 부부의 갈등(고전7:13-15)
5.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내려다보신다(12). 여기의 의인은 의롭게 사는 자를 뜻한다.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 있다(약4:4). 행복하게 장수하려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
6. 이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12). 응답 받는 기도의 핵심: 의롭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7.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12). 이것을 기억하고 피하라.
8. 그렇게 살면 불신자들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13). 바울이나 다니엘 등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이다.
9. 그런데 선하고 의롭게 살다가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며 말씀을 전하면 돌아서는 이들이 많다. 이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14). 약5:11의 위로, 히13:6, 이런 경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고후1:3-5).
10.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분하라(15).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주인 대접하라.
11. 소망의 이유를 답하기 위해 예비하라. “예수만 진리냐? 종교는 다 같지 않냐? 킹제임스 성경, 침례 등의 좁은 길을 가느냐? 너만 잘 믿느냐?” 성경대로 답하여야 한다.
 - a. 우리의 상태(죄와 죄들), 번민과 고민, 양심의 찢림
 - b. 내 힘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
 - c.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창조자만 해결하신다.
 - d. 사람이 되어 오셨다. 복음, 단번 속죄
 - e.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저저 영원히 얻는다.
 - f.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과 휴거에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 g. 복음의 언어인 침례를 행한다.
 - h.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 i.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존하신다.
12. 이 모든 대답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
 - a. 베드로는 구원받은 이후의 선한 행위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결론

하나님은 국가의 제도적 핍박이 없는 평화의 때에 보편적인 방법으로 모든 성도들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목사로서 나도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떨리하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말조심, 행동 조심, 하나님 대접하기, 온유하게 대답 예비

이런 보편적인 법칙의 준수를 통해 땅에서의 행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